

사나게 신사

사나게 신사는 고대부터 있던 신역으로 사나게 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활한 경내 면적을 자랑합니다. 해발 629m의 이 산은 먼 옛날부터 신이 머무는 산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신사는 남쪽 기슭에 있는 본궁과 산 중턱에 있는 동궁, 서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나게 신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927년에 완성된 율령 제도와 의식 운영을 편찬한 법전 『엔기시킴(延喜式, 연희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13세기 이후 역대 통치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학문과 상업, 종교의 중심지로 번창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종교관과 사상은 신도와 불교가 복잡하게 뒤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나게 신사는 많은 접사(주제신과 관계 깊은 신을 모시는 부속 신사), 별당사원, 승원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미카와국(현재의 아이치현 동쪽 절반)의 산노미야(세 번째로 격식 높은 신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다이묘가 취임 후 의무로 되어 있는 영토 순례를 할 때 세 번째로 참배하는 신사였습니다.

그러나 에도 시대(1603~1867)가 되면서 유력한 후원자가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사나게 신사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853년의 화재로 신사의 주요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더욱 타격을 준 것은 1868년 메이지 유신 후에 불당과 불상 등의 파괴를 명한 신불분리령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화재를 피한 불당과 화재 후에 재건된 불교 건물은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단 하나 남은 ‘야마나카 관음당’은 본전 북쪽에 있습니다. 현재의 샤덴은 1856년부터 1965년에 걸쳐 건립된 것으로, 가장 안쪽의 본전으로 이어지는 참배길을 따라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사나게 신사의 참배객은 나무로 된 에마(소원 등을 적어 걸어두는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 신에게 봉납할 수 있습니다. 에마에는 주제신 오우스노미코토(大碓命)를 상징하는 왼손잡이용 낫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우스(大碓) 황자는 전설적인 전사이자 일본의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영웅 중 한 명으로 야마토타케루(日本武尊)의 쌍둥이 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쌍둥이 중 한쪽은 반드시 오른손잡이, 다른 쪽은 왼손잡이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왼손잡이용 낫은 황무지를 열심히 농경지로 개척했다고 알려진 오우스(大碓) 황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